

# 2024 April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3월 동향

미 1월 근원 PCE 감소세 약화로 상승 출발한 국고채금리는 파월 의장 의회 연설 도비시 언급 등으로 크게 하락 후, 상승 되돌림 보였으나, 3월 FOMC 기존 3회 인하 시사로 재차 하락 후 3.3% 전후 등락 시현

한-미 주요 물가 추세가 상승세 전환된 양상이었으나, 파월 의장 의회 연설이 기존 금리인하 3회 지지의 비둘기적 발언 등에 따라 큰 폭 하락 전환 양상 시현

BOI 정책 변경 가능성이 대한 언급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 전환 요인도 금리 상승에 영향

3월 FOMC 결과의 기존 3회 금리인하 시사 등의 비둘기적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 크게 하락. 하지만, 이어진 연준 인사들의 여전한 매파적 발언 등이 하단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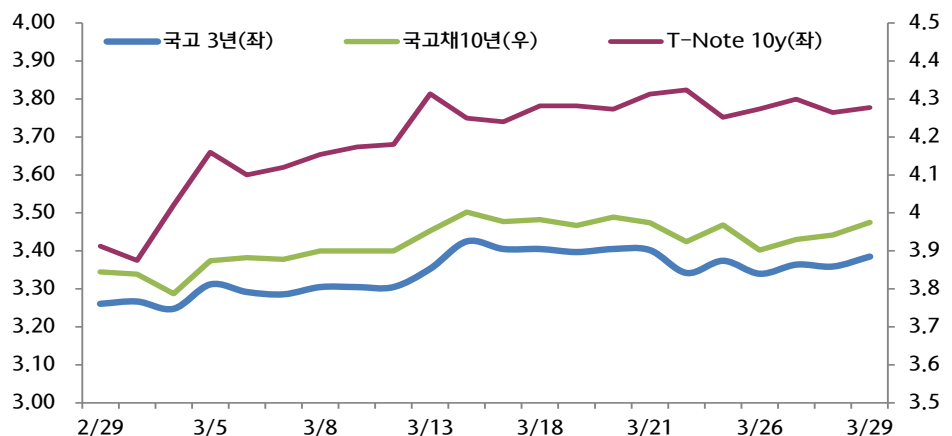
- 월초, 한국과 미국 주요 물가지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며 국내외 금리는 전반적 상승 흐름 출발. 하지만, 파월 의장 의회 연설이 금리인하 지지 기조로 인식되며 하락 전환 시현
  - 월 초, 미 1월 근원 PCE지표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1년래 가장 급격한 상승을 보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도 3%대로 재차 상승 흐름 전환한 상황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이어, 파월 의장 의회 연설이 지난 12월 FOMC의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국내 긍정적 수급 개선 요인 등으로 급락 흐름 시현
- 중반, 미 2월 고용지표의 엇갈린 방향성 속에 다른 기타 경제지표 탄탄한 결과와 BOI 정책변경 이슈 등으로 상승 전환 후, FOMC 경계감 등이 강화된 국면 등으로 추세 이어진 형국
  - 중반, 미 2월 고용이 상승 흐름 나타냈으나, 실업률도 상승하는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영향이 모호해졌으나, BOI의 출구전략 모색 발언 등이 소폭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형국
  - 여기에 FOMC 경계감과 국제유가가 최근의 지정학적 이슈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을 반영하며 상승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추세적 상승세를 나타냄
- 후반, 3월 FOMC 결과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기존 3회 인하를 지지하며 전반적으로 비둘기적 해석된 영향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전환. 하지만 이어진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언급에 상승 전환 마감
  - 후반, 3월 FOMC 결과가 시장의 연내 2회 인하 가능성 예상에도 기존 3회 인하를 지지하며 비둘기적으로 인식된 영향 등으로 크게 하락
  - 이어 미 국채 시장 수급 호조 등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에도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언급이 나옴에 따른 FOMC의 도비시 영향이 일부 희석화되며 상승 전환 흐름으로 마감

### 3월 평균

국고채(3년): 3.35%

T-Note(10년): 4.2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4 월 전망

미 물가에 대한 연준 의장 긍정 평가 속 6월 인하 기대와 미국 외 주요 국가 선제적 인하 가능성과 한은 2분기 이후 인하 기대 등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를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유효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sup>(F)</sup>	3.20 <sup>(F)</sup>	3.10 <sup>(F)</sup>	3.00 <sup>(F)</sup>

미 2월 PCE 물가에 대한 연준 의장의 긍정적 평가 속 점진적 2% 도달 시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작용이 전반적인 국내외 금리 인하에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연준 의장의 2월 물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가 결국, 목표 수준 물가 도달 시 인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비시 기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월 미국의 근원 PCE는 전년 동월대비 2.8% 상승으로 시장 전망에 부합한 가운데 1월 상승률보다 0.1% 낮은 수준. 반면 PCE는 전년대비 2.5%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치로 점진적 감소 전망이 우세
  -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서둘러 금리인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 전제하면서도 물가 감소 흐름이 예상 경로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림에 따라, 시장의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탄력 받을 수 있는 측면이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를 유효하게 할 것으로 예상

ECB, BOE 등 미국 외 선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목표 물가 하회에 따른 금리 인하 기조 선회는 선제적 국고채 금리 하락 방향성에 영향 미칠 요인

- 일부 신흥국 중심 금리인상에도, 선진 주요국 중심으로 중앙은행 목표를 하회하는 물가 상황이 고려된 금리 인하 가능성 증대 등이 전반적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일부 신흥국 중심 금리인상이 단행된 반면,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은 목표를 하회하는 물가 상황이 고려된 인하 가능성이 다소 확대되는 양상. 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전반적 금리인하 강화 기대 등은 국내외 주요 금리의 점진적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대내적 PF 리스크에 대해, 완충력 고려 시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될 전망에도 대외적 전쟁 지속에 의한 유가 상승 추세는 국고채 금리 등락을 견인할 요인으로 예상

4월 국고채(3Y) 금리는 3.20%~3.37% 예상

- 최근 국내 물가가 3.1%로 재차 높아진 가운데 수출 전망 개선에도 여전한 내수 부진은 국내 경제 우려 높이는 요인. 여기에 연준에 대한 시장 6월 인하 전망 탄력 속 한은도 2분기 후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보다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 최근 국내 물가지표가 3.1%로 재차 상승한 가운데 수출 전망 개선에도 민간 소비 부진 등이 국내 경제 우려를 여전히 불식 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 한은의 비둘기 기조에 영향을 미칠 요인
  - 여기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연준에 대한 시장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탄력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도 연준에 이은 2분기 후반 인하 기대감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적 PF 불확실성 요인. 다만, 정책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은 제한 예상</li> <li>· 유럽, 중동 전쟁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80달러 선 상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 의장의 도비시 기조 속에 시장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li> <li>· 한은에 대해서도 강화되는 인하 기대</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3월 동향

3월 FOMC에서 유지된 기존 3회 금리인하 전망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예상에 따른 달러 강세 기조와 위안화 및 엔화의 동반 약세 영향 등이 환율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1,340원대 상향

예상 수준에 부합한 미 PCE 물가지수와 연준 의장의 비둘기 발언 등에 따른 연준 정책 전환 기대 속 달러 약세 반영하며 환율은 1,310원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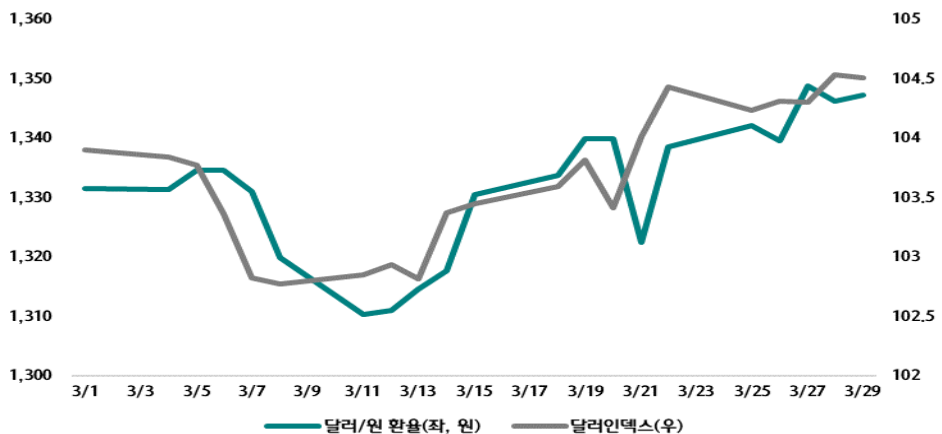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과 BOJ의 완화적 금융여건 유지 시사로 인한 엔화 약세에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되며 환율 상승

3월 FOMC에서 유지된 연준의 연내 3차례 금리인하 전망에도 위안화, 엔화의 평가 절하 움직임과 월러 Fed 이사의 호키시한 발언에 달러 강세

- 월초, 1월 PCE 물가지수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가운데 도비시하게 평가된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예상보다 높은 미 실업률 등에 환율은 하락 압력 우위 보이며 1,310원대 진입
  - 월초, 예상에 부합한 미 1월 PCE 물가지수와 ISM 제조업 PMI 연속 위축에 연준 피벗 기대 유지되며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중국 양회에서 부양책 부재로 인한 위안화 약세 영향 속 상승 전환
  -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비둘기 발언과 미 실업률 상승 등에 Fed 금리인하 기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와 위험선호 심리 유입 등에 환율은 1,310원대로 하락
- 월 중반, 미국 물가 우려 속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반영하며 환율은 상승 전환 후 BOJ 비둘기적 금리인하에 따른 엔화 약세에 글로벌 강달러 심화되며 추가 상승
  - 중반, 미국 2월 CPI 및 PPI가 예상치를 연속 상회하자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둔화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경로 불확실성 부각된 측면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며 환율은 상승 전환
  - BOJ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YCC 정책 폐기에도 완화적 스탠스 지속으로 인한 엔화 약세가 글로벌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FOMC 앞둔 경계심리 등이 더해지며 장중 1340원대 재진입
- 후반, FOMC 점도표 상 연내 3회 금리인하 전망 유지에 안도감 유입되며 환율 하락했으나 위안화와 엔화의 큰 폭 약세 흐름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 등에 1,340원대 후반 마감
  - 후반, 3월 FOMC의 기존 3회 금리인하 전망 시사에 따라 환율 큰 폭 하락했으나 스위스 중앙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 등 미국 외 주요국 중앙은행 완화적 기조에 상대적 달러 강세 이어지며 환율 상승
  - 이어 중국 경제리스크, BOJ 통화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 확대와 월러 연준 이사의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에 환율은 상승 압력 우위 속 1340원대 후반 마감

3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29.4  
3월말 달러/원 환율 : 1,347.2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 4 월 전망

연준 보다 앞선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 이어질 전망 속에 국내 수출 회복세에도 배당 역송금 이슈와 위안화, 엔화 약세 등에 원화 약세 압력 지속될 것으로 예상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30	1,310 <sup>(F)</sup>	1,265 <sup>(F)</sup>	1,285 <sup>(F)</sup>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연준과 주요국 간 피벗 시점이 차별화될 것이라 예상과 연준 금리인하가 지연될 것이라 우려 등이 강달러를 견인할 전망

- 미국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 이어간 영국 속에 시장 내 연준 금리인하 기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연준보다 선제적인 금리인하 예상되는 미국 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기조가 상대적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월 근원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감소세 보였음에도 양호한 미국 경제상황 감안 시 더딘 물가 둔화세로 인한 연준 금리인하 시점 조정 등 피벗 기대감이 제한되며 달러 지지력 유지될 전망
  - 또한,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기조와 대비되는 스위스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단행과 ECB 관계자들의 비둘기 발언 등 주요국 간 금리인하 시기 차별화 전망이 상대적 달러 강세 기조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위안화, 엔화 약세 지속 국면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판단되며, 국내 수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4월 배당 역송금 수요 경계감에 원화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일본의 통화 약세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과 통화완화 기조에 따른 약세 움직임과 우-러, 미-중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영향 등은 원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 경기 부진 반영한 위안화 약세 기조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BOJ 추가 금리인상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 예상이 엔화 약세 견인하며 상대적 달러 강세 지지할 것으로 판단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압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 부각도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

4월 달러/원 환율  
1,330원 ~1,365원 예상

- 반도체 업황 개선 가시화,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국내 경기 회복 기대는 원화 강세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 다만, 계절적 요인인 4월 배당 역송금 수요로 인한 외자 유출이 수급상 원화 약세 재료로 상충될 전망
  - 대내적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반한 6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가 국내 경제 체질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 예상 속에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은 원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
  - 그러나 계절적으로 4월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로 인한 외자 유출에 의해 원화 약세 압력이 일시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1,360원선에서 상단은 제한 받을 것으로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우려 속 주요국의 선제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li> <li>· 위안화, 엔화 약세 기조 지속</li> <li>· 수급상 4월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반도체 업황 개선세와 무역수지 연속 흑자 등 경기 회복 기대감</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3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9.8  
3월 엔/원 평균환율 : 888.8

4월 엔/원 예상범위 : 880-895원

**주요 통화당국 선제적 완화 기조에 의한 달러 강제 영향 속, BOI도 지표 상황에 따른 추가 인상 여건 고려될 것이라 측면 속 현 경기 개선을 위한 완화적 정책 지지 가능성 우위 예상에 따라 150엔대 전후 흐름 이어질 전망**

- (엔화 동향) BOI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재언급에 엔화는 상대적 강제 출발. 중반, BOI 금리인상과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종료에도 완화적 금융여건 유지 시사에 약세 압력 가중. 후반,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재조정에 엔화 약세 심화되며 달러당 151엔선 근접 후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들의 구두개입 이어지자 추가 약세 압력 제한되며 마감
- (엔/원 전망) 긍정적 임금 춘투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물가 선순환 고리 형성 속 3월 BOI 전격적 정책 정상화에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추가 정상화 기대 약화 등이 중기적 관점에서 엔화의 150엔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엔화의 약세 기조를 포함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통화국의 비둘기적 통화 스탠스가 연준에 앞서고 있다는 측면이 상대적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점도 재차 엔화 약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BOI의 정책 결정 이후, 물가지표의 재차 상승(2월 소비자물가지표 2.8%)이 가속화한 측면 등으로 시장의 추가 인상 기대 상존하나, 실제 인상보다 BOI는 일단 완화적 기조 선회 속 향후 지표 상황 점검하며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이 전반적 엔화의 150엔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엔/원 환율은 엔화 약세 기조에도 대외적 달러 강제 단기 지속을 반영함에 따른 원화의 1,300원대 중반 가격 지속 가능성 등으로 전월의 890원 전후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 유로/원 전망

3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872  
3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47.7

4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50~1,465원

**유로존 경기가 여전히 고금리 압박 등에 따른 소비위축 속 회복력 복원이 다소 완만한 상황. 여기에 2% 중반까지 낮아진 물가 지표 등으로 통화정책 변경이 연준보다 앞설 전망 등으로 유로 약세 기조는 다소 이어질 전망**

- (유로화 동향)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발언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에 유로화는 강제 출발 후 ECB의 선제적 인하 가능성에 상단 제한. 중반, ECB 인사들이 올 여름 피벗 가능성 시사하는 측면과 예상치 못한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에 약세 전환. 후반, 연준의 연내 3회 인하 전망 유지에 유로화 약세의 일부 되돌림 나타났으나 유럽과 미국 간 성장 격차와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등에 약세 압력 재차 가중되며 마감
- 유로존의 점진적 경기 회복 양상에도 고금리 소비위축 압력 잔존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면. 여기에 물가 지표도 2%중반까지 하락함에 따른 통화완화 정책 변경이 연준보다 이르게 실행될 가능성 등이 전반적인 유로 약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 유로존의 양호한 고용 여건, 투자 생산과 제조업 등의 저점 반등 기대에도 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 압력 상존 속에 연준보다 빠른 전망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전반적인 유로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로/원은 통화 완화 선회 가능성의 유로존 정책에도 대외적 달러 강제에 의한 상대적 원화 강세가 다소 지속될 가능성 등으로 1,460원 전후 등락 흐름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4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b>	<b>2</b>	<b>3</b>	<b>4</b>	<b>5</b>	<b>6</b>
<b>4월 주요 ISSUE</b> 미국 AACR 2024(4/5~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읍선선거일(4/11) ECB 통화정책회의(4/11) 한국 금융통화위원회(4/12) IMF/WB 연례 총회 회의(4/17~19) BOJ 통화정책회의(4/25~26) 미국 FOMC(4/30~5/1)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4월중) 중국 정치국회의(4월중)	<b>[유장] 영국, 프랑스, 독일(부활절)</b> 한 3월 수출/입(YoY +4.8%, -13.1%) S&P글로벌 제조업 PMI 미 2월 건설지출(MoM -0.2%) 3월 S&P글로벌 제조업 PMI[F] ISM 제조업, 구매물가, 신규주문, 고용 중 3월 Caixin 제조업 PMI(50.9) 일 1Q 소형, 대형, 제조업/비제조업 전망	한 3월 CPI(MoM +0.5%, YoY +3.1%) CPI 근원(YoY +2.5%) 미 2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제조업수주(-3.6%) 내구재주문[F] 중 3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52.5, 52.5) 유 2월 1년 CPI 기대(YoY +3.3%) 3년 CPI 기대(YoY +2.5%) 3월 HCOB 제조업 PMI[F]	미 3월 ADP취업자 변동(140k) S&P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고용, 신규주문 유 2월 실업률(6.4%) 3월 CPI(MoM +0.6%, YoY +2.6%) CPI 근원(YoY +3.1%) 일 3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b>[유장] 중국, 홍콩(청명절)</b> 미 3월 Challenger Job Cuts(YoY +8.8%) 유 2월 PPI(MoM -0.9%, YoY -8.6%) 3월 실업률(6.4%) 3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F] 영 3월 S&P 글로벌 영국종합PMI 호 3월 주도은행 호주PMI 종합	<b>[유장] 중국(청명절)</b> 유 2월 소매판매(MoM +0.1%, YoY -1.0%) 일 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가계 소비지출(YoY -6.3%)	
<b>7</b>	<b>8</b>	<b>9</b>	<b>10</b>	<b>11</b>	<b>12</b>	<b>13</b>
	유 4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10.5) 일 2월 실질 임금총액(YoY -0.6%) 호 2월 투자자대통령MoM	미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89.4) 중 3월 통화공급 M2(YoY +8.7%) 일 3월 소비자기대지수(39.1) 공작기계 수주[P] 호 4월 웨스트팩 소비자기대지수	<b>[유장] 한국(국회의원 선거)</b> 3월 FOMC 회의록 공개 미· 일 정상회담 미 2월 도매재고(MoM -0.3%) 3월 CPI(MoM +0.4%, YoY +3.2%) CPI 근원(MoM +0.4%, YoY +3.8%)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1.1%) 일 3월 PPI(MoM +0.2%, YoY +0.6%)	<b>[ECB 통화정책회의]</b>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5%로 4연속 동결.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 0.6%로 하향 조정 (2) ECB는 대부분 지지 인플레이 지표 완화에도 임금 상승 등 물가 상승 압력 높다고 판단 미· 일· 필리핀 3차 정상회담 한 4월 1~10월 수출/입(YoY -13.4%, -28.6%) 미 3월 PPI(MoM +0.6%, YoY +1.6%) PPI 근원(MoM +0.3%, YoY +2.0%) 중 3월 CPI, PPI(YoY +0.7%, -2.7%)	<b>[한국 금융통화위원회]</b>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5%로 9연속 동결 (2)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대내외 정책여건 고려하여 긴축 기조 유지 결정 한 3월 실업률(2.6%) 미 3월 수입물가(MoM +0.3%, YoY -0.8%) 수출물가(MoM +0.8%, YoY -1.8%)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b>14</b>	<b>15</b>	<b>16</b>	<b>17 Belge Book</b>	<b>18</b>	<b>19</b>	<b>20</b>
	미 2월 기업채고(MoM +0.0%) 3월 소매판매(MoM +0.6%) 소매판매 근원(MoM +0.3%) 4월 NAHB 주택시장지수(51) 뉴욕 제조업지수(-20.9) 유 2월 산업생산(MoM -3.2%, YoY -6.7%) 일 2월 핵심기계수주(MoM -1.7%, YoY -10.9%)	한 2월 통화공급 M2(MoM +0.2%) 3월 수입물가(MoM +1.2%, YoY -0.2%) 수출물가(MoM +1.4%, YoY +4.2%) 미 3월 주택착공건수(MoM +10.7%) 건축여가(MoM +1.9%),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MoM +0.1%), 제조업 생산 4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0.6) 중 1Q GDP(YoY +5.2%, QoQ +1.0%) 3월 실업률(5.3%)	한 2월 실업률(3.0%) 유 1월 산업생산(MoM +2.6%, YoY +1.2%) 영 1월 광공업생산(YoY 0.6%) 월간GDP(MoM -0.1%) 호 3월 웨스트팩 선행지수 전월비	미 3월 기준주택매매(MoM +9.5%) 선행지수(102.8)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38.6) 유 2월 건설생산 호 3월 실업률, 취업자변동, 정규직고용변동	일 3월 국내 CPI, CPI 근원 전국 CPI 영 3월 소매판매	
<b>21</b>	<b>22</b>	<b>23</b>	<b>24</b>	<b>25</b>	<b>26</b>	<b>27</b>
	한 4월 1~20월 수출/입(YoY +11.2%, -6.3%) 미 3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0.05) 유 4월 소비자기대지수[P]	한 3월 PPI(YoY +1.5%) 미 3월 신규주택매매(MoM -0.3%) 4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먼드 연준 제조업지수, 경기연황 S&P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유 4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일 4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100.7) 미 3월 내구재 주문, 근원 내구재 주문 유 1월 1년 CPI 기대, 3년 CPI 기대 일 3월 PPI 서비스 호 1Q CPI (전년비)	<b>[BOJ 통화정책회의(~26)]</b> (1) 지난 회의에서 단기금리 연 0~0.1%로 인상 (2) BOJ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있으나 완화적인 금융 여건은 유지할 방침 한 1Q GDP[A](QoQ +0.6%, YoY +2.2%) 3월 백화점, 할인점 판매, 소매판매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 비제조업 미 1Q GDP, 개인소비, GDP 물가지수 3월 소매채고, 미결제고용변동	미 3월 PCE 디플레이터, 근원 PCE 디플레이터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4월 도쿄 CPI, CPI 근원 영 4월 GfK 소비자기대지수	
<b>28</b>	<b>29</b>	<b>30</b>				
	<b>[유장] 일본(쇼와의날)</b> 미 4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활동 중 4월 종합, 비제조업, 제조업 PMI Caixin 제조업 PMI 유 4월 소비자, 서비스, 산업, 경기기대지수	<b>미국 FOMC(~5/1)]</b>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25~5.5%로 동결. 점도표 중강감 4.6%로 연내 3회 인야 시사 (2) 올해 경제성장률 2.1%, 근원 PCE 물가 2.6%로 각각 0.7%p, 0.2%p 상향 조정 <b>한은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b> 한 3월 광공업생산, 경기순환영 선행지수 변동 미 1Q 고용비용지수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